

## 《흰 눈》 독서지도안



흰 눈이 하얀 꽃으로 다시 피어나다!  
흰 눈처럼 아름다운 꽃,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우리네 삶!

- 작가\_ 공광규 시 | 주리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1. 도서 소개

추운 겨울, 흰 눈이 내리면 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에 소복이 쌓입니다. 앙상하던 겨울나무에 눈이 쌓여 하얀 눈꽃을 피우지요. 내리고 또 내리다가, 겨울에 다 내리지 못한 눈은 어디로 갈까요?

겨울에 다 내리지 못한 흰 눈이 매화나무, 벚나무, 조팝나무, 이팝나무 등 꽃나무 가지 위에 앉아 하얀 꽃으로 피어납니다. 《흰 눈》은 우리 땅 곳곳에서 하얀 꽃으로 머문 흰 눈의 여정을 담은 시 그림책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펴내며 본문 서체를 부드럽게 바꾸어 글과 그림의 유기적 호흡을 도왔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면 우리 마음속에도 야릇한 설렘이 피어납니다. 화창한 봄, 자연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꽃들을 바라보노라면 탄성이 절로 나오지요! 자연에서 시적 감흥을 포착해 시로 절묘하게 표현하는 공광규 시인은 흰 눈과 흰 꽃을 오버랩하여 ‘흰 눈의 여정’이라는 한 편의 동화 같은 시를 완성했습니다.

매화나무에서부터 찔레나무까지 하얀 꽃으로 피었다 진 ‘흰 눈’은,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꽃나무인 줄 알고 성긴 머리 위에 가만가만 앉습니다. 할머니 머리 위에서 핀 ‘흰 꽃’이야말로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롭지 않을까요?

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은 ‘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환에 대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할머니로 귀결되는 시간과 세월의 흐름을 이해하며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겁니다.

## 2. 지도 개요

- 대상 : 1~2학년, 3~4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1~2학년군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통
  - 1학년 1학기 국어 7. 생각을 나타내요
  - 1학년 2학기 국어 2. 소리와 모습을 흉내내요
  - 2학년 1학기 국어 3. 마음을 나누어요
    - 8. 마음을 짐작해요
    -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떠올리며
    -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 3학년 1학기 국어 1. 재미가 톡톡톡
    - 10. 문학의 향기
  - 3학년 2학기 국어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 4. 감상을 나타내요

### • 지도 요점 :

겨울에 다 내리지 못한 흰 눈이 폴폴 휘날려 꽃나무 가지 위에 앉습니다. 매화나무, 벚나무, 조팝나무, 이팝나무, 쥐똥나무, 산딸나무…….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흰 눈은 소복소복 흰 꽃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흰 눈에서 흰 꽃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아름다운 변화 앞에 우리의 마음도 두근두근 활동을 시작합니다.

‘흰 눈’의 어떤 꽃으로 피어났을 때 여러분은 가장 마음이 두근거렸나요?

### 3. 책 이해하기

(1) 겨울에 무엇이 다 내리지 못했나요?



- ① 우박
- ② 눈
- ③ 소나기
- ④ 번개



(2) 벚나무 가지에 다 못 앉은 눈은 어느 나무 가지에 앉았나요?



- ① 조팝나무
- ② 이팝나무
- ③ 아까시나무
- ④ 쥐똥나무



(3) 다음 중 하얀 꽃으로 머문 흰 눈의 여정이 아닌 곳은 어디인가요?



- ① 산딸나무
- ② 찔레나무
- ③ 산수유나무
- ④ 쥐똥나무

▶ -----

(4) 흰 눈은 할머니가 무엇인 줄 알고 성긴 머리 위에 앉았나요?



- ① 담장
- ② 기차길
- ③ 바다
- ④ 꽃나무 가지

▶ -----

#### 4. 확장활동

(1) 봄이 찾아오면 산과 들에 화사한 꽃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봄꽃은 무엇인가요?



(2) 이 책에는 흰 눈에서 흰 꽃으로 이어지는 흰 눈의 여정과 함께 할머니의 하루 모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의 하루 일상을 알고 있나요?



(3)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할머니의 얼굴이 처음으로 그려지는 마지막 장면은 이 책의 묘미예요. 흰 눈이 내린 할머니 머리 뒤로 등불처럼 노란 꽃나무 가지들이 펼쳐지죠. 우리 삶에서 꽃처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절은 언제일까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② 눈 | (2) ① 조팝나무 | (3) ③ 산수유나무 | (4) ④ 꽃나무 가지

**확장활동**

- (1) 꽃비를 내려주는 벚꽃이 좋아요.  
봄소식을 알리는 개나리를 좋아해요. 등
- (2) 할머니는 바쁜 엄마와 아빠 대신 나와 동생을 돌봐주어요.  
흥이 많은 우리 할머니는 장구 치기를 배우러 다녀요. 등
- (3) 세상 풍파를 모두 겪어낸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이요.  
지금 이 순간, 날마다 매순간이 찬란한 거 같아요. 등